

우리는 디지털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간다.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온라인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일 시	담당팀	AI정부기획팀
2026. 07. 24.(금) 15:00	담 당 자	박선주 팀장(053-230-1601) 전선영 연구원(053-230-1612)

NIA, 제1회 AI 정부 실험실 이용자 포럼 개최

-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AI 정부 실험실에서 실현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형철, 이하 NIA)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24일(금) 서울 DDP에서 “제1회 AI 정부 실험실 이용자 포럼” (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 AI 정부 실험실은 현업 공무원이 대화형 코딩, AI 코딩 도구 등을 활용해 공공 AX 과제를 신속히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험·개발 환경이다.
- 기존에는 소규모 업무 개선 아이디어도 별도의 예산 확보와 기획·개발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구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반면 AI 정부 실험실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어 현장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포럼은 지난 6월부터 AI 챔피언·해커톤 우수자 등을 중심으로 개시된 AI 정부 실험실 시범운영에 따라 이용자 간 소통·협업, 우수 사례 공유, 애로사항 청취·환류를 통해 실험실의 현장 체감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이번 포럼은 공무원 주도의 AI 개발 경험을 확산하고, 현장

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공공부문의 AI 활용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우수 사례 시상, 시범운영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졌다.
- 인공지능 기술 기업 데이블의 강천성 팀장이 바이트 코딩 최신 동향 및 효율적 개발 방법론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 AI 정부 실험실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생성된 38개 과제 가운데 이용자와 AI챗피언을 중심으로 투표를 진행해 우수 사례 2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관련 법령부터 실제 업무 흐름까지 한 장으로 읽는 국가 운영 카탈로그 ‘대한민국 제도 지도’가 선정되었으며, 우수 사례로는 신규 공무원이 첫 출근부터 쉽게 실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화성특례시 신규자 지식 창고’가 선정되었다.
- 참석자들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서비스 운영 및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 NIA 김형철 원장은 “이번 포럼은 현업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서비스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AI 정부 실험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검증된 우수사례가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IA와 행정안전부는 향후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과 시범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 환경과 기술지원 체계, 관련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현장 중심의 AI 정부 실험실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사진설명

<단체사진>



[제1회 AI 정부 실험실 이용자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상자 단체사진>



[제1회 AI 정부 실험실 이용자 포럼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시상자와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